

백삼위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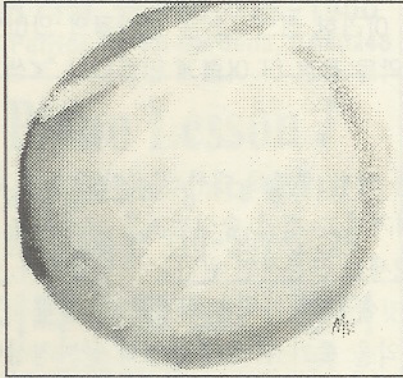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삼위일체 대축일(예수 성심 성월)

제29권 28호(나해) 2009 · 6 · 7

[묵상]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예수 성심 성월 기도(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웅장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아 침 미 사 (레지오) 저 녁 미 사	오전 오후	9:00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30 7:00 8:00 7:30
토 요 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매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9:00 1:00 9:00 1:0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김소천 마리아, 신정아, 엄은심 도로테오
	(생)조지 가보라, 김풍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가정, 남인구 야고보, 권승오, 김민석, 김지향, 이범주, 송원석, 송민영, 문제원
주 일 낮 미사	(연)노무현 전대통령,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금순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최복덕 마리아, 이상현 베드로, 변세연 대진 안드레아, 임계순, 장현숙 발라라, 오길수 안드레아, 유 미카엘라, 전규인 스테파노, 천서인 레지나, 박대수 나자로,
	(생)이윤조 글라라, 모은기 다두, 이은지 수산나, 이영진 레오날도, 박혜경 레나타, 권병연 리디아, 이재숙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와 헤선 안젤라 가정,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토런스 서3반원들, 정열모 미카엘 가정, 유영희 그레고리오 가정, 폴라 & 리처드 매킨드리, 김준형 마태오, 김준호 크리스토퍼, 첫 영성체한 주일학교 학생들, 구마리아네 수녀, 박상대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4,32-34.39-40
화답송	◎복되다. 주께서 당신 백성으로 뽑으신 백성이여! <전례성가 86, 연중 제19주일 다해 참조>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흐뭇이 즐거워하라. 올바른 이라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복되다, 하느님이 주님이신 백성이여. 주께서 당신 기쁨으로 뽑으신 겨레로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 당신 자비를 바라는 이들 위에 있나니.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제 그들을 살게하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나니, 우리 구원 우리 방패 주님이로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어여뻐 여기심을 우리 위에 내리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14-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소서. ◎
복 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5	105
봉헌	401	267,197
성체	283	311,299
파견	384	195

7) 생명에 대한 공격의 배경에는 근본적인 문화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 그 배경에는 근본적인 문화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위기는 지식과 윤리의 토대 자체에 대한 회의주의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주의는 인간됨의 의미와 인권과 의무의 의미 파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생명의 복음 11항>

낙태와 안락사 등 약한 생명에 대한 공격이 오늘날 ‘범죄’가 아니라 ‘권리’로 여겨지고 법적 승인까지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요한 바오로 2세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합니다. 즉 오늘날 참되고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를 의심하고, 경제적 효율성, 편리함, 눈앞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양심의 호소마저도 귀를 막는 문화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더 큰 수용과 사랑과 보살핌을 요구하는 생명은 쓸모없는 생명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참을 수 없는 짐”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죽음의 문화”를 형성합니다.(생명의 복음 12항)

8) 생명에 대한 공격과 인권 존중은 양립할 수 없다.

☞“(인권이란 개념을 발견한 역사적 과정은) 오늘날에 와서 놀라운 자기모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지닌 침해할 수 없는 권리들이 엄숙하게 선포되고 생명의 가치가 공적으로 인정되는 바로 그 시대에 생명의 권리 자체가, 특히 존재의 가장 중대한 순간에, 곧 탄생과 죽음의 순간에 부정되거나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생명의 복음 18항>

1948년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생명권을 비롯하여 차별 없이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를 장엄하게 선언한 나라들이 낙태, 안락사, 불임시술 등 생명에 대한 공격을 개인적 자유의 정당한 표현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조장하고 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선언들과, 약하고 곤경에 놓인 사람, 또는 노인, 또는 장애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공격들은 ... 인권에 관한 문화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생명의 복음 18항)◆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모든 생명체는 같은 종류와 어울리고 인간은 저를 닮은 자에게 집착한다.”
(집회서 6,16; 13,16)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다

예전에는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까다로운 교리문답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시골 공소를 방문한 신부님이 예비자 할머니에게 교리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하느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다음은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분이신 하느님은 몇 개의 위격입니까?” 한참 생각한 할머니는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개의 위격입니다.”

어이없어하는 신부님에게 할머니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성당에 갔었는데 그때 벽에 걸려있는 하느님 그림을 봤거든요. 거기에 긴 흰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성부)가 젊은 청년 예수님(성자)을 안고 있고 가운데 비둘기 모습(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성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나이를 먹어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어렸을 때 본 그 할아버지가 여태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신학교 때 교수 신부님께 들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고, 세 위격이 한 분 하느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위격(persona)은 본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맡았던 역할의 가면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는 한 명의 배우가 여러 개의 다른 가면을 쓰고 여러 역할을 맡아 공연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배우에게 여러 개의 가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체(substance)란 말은 본성으로 하나라

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럿이 서 있게하는 바탕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배우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세 가지 다른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라는 무대에는 하느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무대에서 각자 고유한 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배역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로 우리의 삶에서 본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일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결코 교리적이나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랑하려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하느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교리는 온전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느님 계시의 신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대로 신비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인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의 신비에 “나는 믿나이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레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신덕레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금자 데레사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7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첫 영성체 축하합니다.

오늘 낮미사 중에 거행된 첫 영성체 예식에서 주일학교 학생 16명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처음으로 받아모셨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인 이들이 앞으로 성체성사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도합니다.

♡안크리스티나 ♡이크리스티나 ♡이야코보 ♡안어거스틴
♡박요셉 ♡박요한 ♡김그레이스 ♡이에스터 ♡박캐서린
♡이올리아나 ♡허스테파노 ♡박요세피나 ♡김레아 ♡김카니
♡배어거스틴 ♡파베르나르도

◆ 감사드립니다.

칠레 리오 추엘로 성당에 베풀어 주신 백삼위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골롬반 선교회 김종근 도밍고 신부 드림.

◆ 최영신 프란치스코 형제의 종신부제 서품식 및 감사미사

- 서품식 : 6월13일(토) 오전 9시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emple St. LA)
- ☞ 본당 카폴(버스) 집합 : 당일 오전 7시15분 본당 주차장
- 수품기념 감사미사 : 6월14일(주일) 오전 11시, 본당

◆ 제4차 세계 울뜨레아 대회

- 일정 : 8월1일(토) 낮 12시~오후 9시
- 장소 :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 티켓에매 : \$25 * 접수 : 정병옥 율리아 ☎(310)404-1607

◆ 빈첸시오회 의류 수집

- 빈첸시오회가 집에서 입지않는 의류를 수집합니다, 모아진 의류는 LA 대교구 빈첸시오회로 보내 남미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수집장소 : 성전 밖 빈첸시오 수거함

◆ 청소년 보호위 Finger Print(지문 채취) 실시

- 대상 : 2009/2010 년 주일학교, 한국학교 교사진, 청소년 보호 위원회 위원, 기타 청소년 관련 봉사자
- 일시 : 6월10일(수) 12:00pm - 3:40pm, 5:20 pm - 7:20pm
- 장소 : St. Philomena(21900 Main St. Carson)
- 사전 예약 필요 ☎(310)830-6180

◆ VIRTUS 한국어 교육

- 일시 : 6월20일(토) 2:00PM ~ 5:00PM
- 장소 : 백삼위 본당 강당
- 강사 : 최안젤라(LA 대교구 Virtus Training Facilitator)
- 대상 : 주일학교/한국학교 교사진, 청소년 보호 위원회 위원, 청소년 관련 봉사자, 기타 관심있는 신자분들
- 문의 : 청소년 분과장 강인모 테오도시오 ☎(415)730-4585

◆ 김수환 추기경 추모영상 DVD 보급

- 본국의 평화방송/평화신문은 지난 2월 선종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추모영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출시, 해외교우들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내용 : 추기경님의 유언말씀, 장례 예절 등 차례로 수록. 60분 DVD, 한글음성/영어자막/일어자막
- 보급가 : \$15 * 신청 : 본당 사무실

◆ 대학부 PACEM 정기모임 시작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본당 1층 회의실
- 대상 : 회원들간의 교육 및 친목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회원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 연락처 : 회장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전진성사 기념사진 찾아가세요.

- 지난 4월 26일 전진성사를 받은 교우들은 기념사진과 스냅사진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십시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7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 6월14일(주일) : 종신부제 축하 잔치국수 전신자에 대접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광자	김민석	김병조	김영경	김종선	김찬구
	김태호	노찬술	박개순	박선형	박수익	박정자
	박정희	박종열	박진심	성지용	안민수	안재만
	양영관	오일순	유영희	윤석구	우영주	이근태
	이상규	이석제	이영석	이영숙	이은록	임재범
	정기은	지경수	차병용	차인수	최미열	최재은
	최진수	하정화	영희가보라	크리스리	송마이클	
	합계 : \$3,540					

미사헌금 : \$2,881.80

특별목적헌금 : 신영웨버

성전헌금	김광자	김민석	김병조	김찬구	노찬술	박개순
	박선형	박수익	박정희	박종열	성지용	안재만
	오일순	유영희	우영주	이근태	이상규	이석제
	이영석	이영숙	이은록	임재범	지경수	차병용
	차인수	최미열	최재은	최진수	하정화	
	영희가보라					

합계 : \$2,207.85

감사헌금 : 이봉림 윤석구 유지숙 이봉덕

주일학교 소식

◆ 2009/10 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 1차 등록시기 : 오늘 주일(7일)~6월 28일
- 2차 등록 시기 : 8월중
- * 교재 준비를 위해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등록금 : \$100 (1년분)/접수 마감 이후 \$10 추가
둘째:\$80, 셋째:\$60, 넷째이후: 무료
(자모회비는 가정당 \$40)
- 대상 : 유치원~12학년

◆ 여름 성경학교 신청

- 일시 : 6월26일(금) 오후 3시~27일(토) 오후 5시
백삼위 본당에서 1박2일(Overnight)
- 대상 : 2학년~7학년
- 준비물 : 침낭, 세면도구, 여벌옷 * 참가비 : \$10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 낮 12시 출발~
7월26일(주일) 오후 3시 도착
- 장소 : Steubenvill,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175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유빌라테 제3회 정기 연주회 '성음악 미사'

남가주 가톨릭 성가 동교회 유빌라테가 제3회 정기 연주회 및 성음악 미사(박상대 마르코 신부 집전)를 봉헌합니다. 성음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6월19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LA, CA 90007)
- 지도신부 : 박상대 마르코 신부
- 문의 : 단장 이항 요셉, 지휘 김정숙 클라라
☎(909)618-7575

◆ 청년들을 위한 제19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2일(목) 오후 7시~5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11361 Cypress Av. Riverside, CA 90010)
- 지도신부 : 선우 진 신부
- 참가대상 : 18세~35세 미혼 및 기혼 청년
- 참가비 : \$180

이번 주 단체 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홍안나 328-5772 6/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박신희 소피아 619-4343 6/13(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6/20(토)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릴 라파엘 374-1572 6/28(주일) 오후 1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박영룡 요셉 527-7471 6/19(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안혜진 세레나 530-0357 6/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6/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권오상 바오로 365-2183 6/12(금) 오후 7시, 성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6/12(금) 오후 7시30분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6/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정훈모 바오로 791-6779 6/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수정 클라라 377-2228 6/12(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허리타 377-3820 6/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판나영 체칠리아 (424)206-2911 6/2(화) 오전 10시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 데살로니카 1서, 데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사목서간(티모테오 1서, 2서, 티토서)에 대한 이해 ◎

바오로의 편지들 중에 하나의 단일성을 두드러지게 이루고 있는 세 통의 편지가 있다. 그것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와 티토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다. 이 세통의 편지는 각각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티모테오와 티토라는 개인에게 보낸 사사로운 편지로 보이지만,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한 사목자가 다른 사목자들에게 교회 내의 직분과 역할, 교회의 제도와 조직, 이단 단죄 및 처리 등 사목적인 문제들을 다룬 공한(公翰)들이다. 이 세 편지는 내용, 언어, 문체, 신학적 사상에 있어서 서로 대단히 비슷하며, 교회 내의 직분에 관하여서도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18세기부터 개신교 학자 Paul Anton(+ 1730년)에 의해 처음으로 이 세통의 편지가 ‘사목서간(司牧書簡)’이라 불렸다. 사목서간은 교회론적, 그리스도론적 가르침에 관한 오래된 전승 자료도 알려준다.(1티모 3,16; 6,15-16; 2티모 1,8-10; 2,8-13; 티토 3,4-7) 이 서간들의 상호관계를 비교할 때 가장 사목적 성격이 두드러진 티모테오 전서는 복음의 수호를, 티모테오 후서는 개인적 성격을 나타내면서도 복음의 수호를, 티토서는 복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 사목서간이 과연 사도 바오로의 친서인가? : 사목서간에 대한 초기 교회의 뚜렷한 증언은 극히 드물다. 2세기 말 이레네오 교부의 증언과 200년경에 작성된 무라토리 경전목록에 이 세통의 편지는 바오로의 서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2세기의 비정통파 사제 마르치온은 이 서간을 바오로의 작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초세기에 바오로의 친저성에 대한 의의를 제기한 유일한 경우이다. 19세기에 이르러서 개신교 학자들 사이에 바오로의 친저성에 관한 의심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역사적, 문학적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거기에 신학적 성격이 첨가되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사목서간에 대한 바오로 친저성을 부인한다.

① 이 서간들에 전제되고 있는 바오로 선교활동의 역사적 배경과 사도행전 및 바오로의 서간집에 보고되어 있는 역사적 배경을 합치시키기 어렵다. 예를 들면 티모테오 전서에 의하면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1티모 1,3) 에페소에 티모테오를 대리자로 남겨두었다.(1티모 3,14; 4,13) 그러나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 사정이 다르다. 바오로는 세 번째 전도여행 때 에페소에 와서 약 2년 동안 활발히 전도를 했다.(사도 19,10) 그리고 그는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그때에 바오로는 티모테오를 에페소에 남겨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자기보다 앞서 마케도니아로 보냈다.(사도 19,22) 그리고 나서 계속 같이 코린토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였으며(사도 20,2) 다시 에페소로 돌아갈 계획이 없었다.(사도 20,4) 티토서에 의하면 바오로는 얼마동안 티토와 함께 크레타 섬에서 전도를 하고 그곳을 떠날 때 티토를 그 섬에 남게 했다.(티토 1,5) 그러나 바오로의 친서들에는 바오로 자신이 크레타 섬에서 활동했다는 말이 없다. 단지 바오로가 죄수로 로마로 이송될 때 그레테를 지나쳐간 적은 있으나 상륙하지는 않았다.(사도 27,9-16) 따라서 티토 3,12에서 바오로가 말하고 있는 크레타 섬의 니코폴리스에서의 활동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 티모테오 후서에도 마찬가지다. 바오로는 감금된 몸으로 이 편지를 썼고(2티모 1,8; 2,9) 감금되기 전에 트로아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2티모 4,13)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감금은 로마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감금생활과는 다르다.(사도 28,16-31)

② 사목서간에 나오는 어휘나 문체가 바오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서간들과는 현저히 다르다. 사목서간의 어휘 중 36%가 바오로 친서에는 없고, 20%는 신약성경 전체에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목서간의 어휘와 용어들은 바오로의 친서들보다 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 또한 바오로의 것처럼 힘차고, 정열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차분하여 이해하기가 쉽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바오로의 특유의 중요한 개념들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의화(義化)라는 개념은 친서에서 “하느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상태”를 뜻하는데, 사목서간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닦아야 할 덕”을 의미한다.(1티모 6,11; 2티모 2,22; 3,16)

◆[주임신부 ㉠ 계속]